

日本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A Study on Early Typography of Suruga Edition and Kishu Edition in Japan

曹 炯 鎮 (Cho, Hyung-Jin)**

◁ 목 차 ▷

- | | |
|------------------------|------------------------|
| 1. 緒 論 | 6.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
| 2. 駿河版 및 紀州版의 概要 | 7. 結 論 |
| 3. 駿河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 <참고문헌> |
| 4.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 [부록] 徳川家康의 駿河版 관련 연표 |
| 5.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出技術 | |

< 초 록 >

(1) 駿河版이란 徳川家康가 1615년과 1616년에 駿府에서 동활자로 인출한 2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그러나 동활자의 주조는 1606년·1615년·1616년의 3차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紀州版이란 紀伊藩이 1846년에 駿河版 동활자로 간행한 1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2) 活字의 재질은 일치하는 자양과 목색의 현상으로 보아 주조한 금속활자이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문자의 미감도 세련된 수준이다. 그러나 주조기술이 미숙하여 금속활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에 다소의 굴곡이 있다. 빼뜯어진 문자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墨色 濃淡은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활자본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정이 불완전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이 진하면서 농담의 차이가 크다. 墨汁의 번짐과 쓸림도 보이지만, 깨짐은 거의 모든 자적에서 볼 수 있다. 잡묵과 이중 인출은 드물게 보인다. 착묵 상태가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에 해당한다.

要語: 일본 駿河版, 紀州版, 고활자, 활자제작기술, 조판기술, 인출기술, 인쇄기술

* 본 연구는 2014년도 강남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ohj@kangnam.ac.kr)

접수일: 2014년 11월 22일 최초심사일: 2014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12월 24일

<ABSTRACT>

(1) The Suruga edition refers to 2 editions printed in bronze type by Tokukawa Ieyasu in 1599 and 1606 at Sunpu. However, the cast for bronze type had been completed over 3 times in 1606, 1615, and 1616. The Kishu edition refers to 1 edition printed in bronze type by Kii provincial government in 1846.

(2) The material for the type was metal by casting, judging from the identical shape of characters and ink color pattern. The type-making technique imitates script writing style and shows sophisticated aesthetic touch of the character. However, its quality is not adequately reflected on the metal type because of crude casting technique. The technical level is middle-upper grade.

(3) The typesetting technique shows somewhat unevenly aligned vertical and lateral stripes of character trace. There are various skewed characters. The thickness of ink color is very inconsistent,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type edition at a glance. Correction is incomplete. The technical level is middle-middle grade.

(4) The brushing techniqu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dark ink color and high discrepancy in ink color thickness. It shows incidences of chinese ink spreads and uneven concentration of ink color. In particular, incomplete application of ink on the characters can be found in almost every character trace. The incidences of inadvertent marks of ink on the paper and double printing are rare. The overall ink spread(착묵?) condition is not very even and consistent. The technical level is middle-lower grade.

(5) The typography level is middle-middle grade.

Key words: Japanese Suruga Edition, Kishu Edition, Early Type, type-making technique, typesetting technique, brushing technique, typography

1. 緒論

일본의 고탄자판은 1590년 서양과 1593년 조선으로부터 그 기술이 전래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慶安년간(1648-1651)까지 62년간 京都 지방을 중심으로 서적 간행에 이용되었다.

일본의 고탄자 인쇄는 크게 위정자 및 정부기관에 의한 인쇄, 京都와 지방의 사찰에 의한 인쇄, 서사 및 개인에 의한 인쇄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당시의 정치적 실권자였던 德川家康가 駿河國 駿府(현 靜岡縣 靜岡市)에서 간행한 駿河版 고탄자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家康의 인쇄출판 사업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慶長 4년(1599)부터 11년(1606)까지의 伏見版이다.¹⁾ 후기는 전기 이후 9년 정도 지난 家康의 만년에 駿府에서 林羅山과 金地院의 崇傳(本光國師) 등에 감독을 시켜서 銅活字로 간행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간행한 것이 곧 駿河版이다. 일본 고탄자본 중에서 유일한 금속활자본이다. 伏見版은 목활자본임에 비하여 駿河版은 동활자본이므로 양자를 구분하여 駿河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紀州版을 駿河版과 함께 분석하는 이유가 있다. 弘化 3年(1846) 봄에 간행된 紀州版 『羣書治要』는 駿河版 동활자를 이용하였다. 다만 조판과 인출은 駿河版과 다른 장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일본의 서지학계가 간행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한 고탄자판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간행에 사용된 활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고탄자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술도 함께 분석하기 위함이다.

판본의 감정은 문헌 자료나 일본 소장처의 목록에 저록된 것을 따르되, 오류가 분명한 경우는 필자가 수정하였다.²⁾ 연구방법은 관련 문헌을 통한 문헌연구법과 고탄자본 실물을 직접 분석하는 직관법 등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 내용은 駿河

1) 曹炯鎮, “日本 伏見版 古活字的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9輯(2014. 9), 65-101.

2) 東洋文庫 소장 고탄자본 『吾妻鏡』은 “駿河版”으로 저록되어 있으나, 감정 결과 伏見版으로 밝혀졌다. 東洋文庫 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誌解題 II』(東京: 東洋文庫, 1998), 118.

版 및 紀州版의 개요·駿河版의 활자제작기술·駿河版 및 紀州版의 조판(인판의 제작)기술·인쇄기술, 그리고 이를 종합한 인쇄기술의 수준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인쇄기술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도 문화사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기술사적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이다.

인쇄기술 수준의 분석을 위한 표준은 필자가 이미 발표한 평가 요소를 이용하였다.³⁾ 인쇄기술을 서술함에 있어서는, 판본을 각각 분석한 것을 모아서 전체를 집단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평가 표준에 나타난 평가 요소의 정도와 수량을 일일이 수치로 표시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정황을 기술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徳川家康의 駿河版과 관련된 연표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2. 駿河版 및 紀州版의 概要⁴⁾

2.1 駿河版 및 紀州版의 定義

駿河版 동활자에 관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헌으로는「時慶卿記」·「慶長日件録」·「本光國師日記」·「駿府記」·「羣書治要板行校合御用抄録」 등이 있다. 이들 문헌의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4)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東京: 共立社, 1967), 227-252, 699-701. ; 印刷博物館 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 企劃展 圖録: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東京: 印刷博物館, 2000), 6-14, 30-34, 86-101, 120-121. ; 西野嘉章編, 『歴史の文字-記載·活字·活版』(東京: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1996), 142-159. 문화사적인 내용은 이들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기타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주의할 점은 川瀬一馬가 『古活字版之研究』를 집필하기 위하여 古活字版을 조사할 때, 연구 노트를 작성하지 않고 기억에 의한 결과 곳곳에서 발견되는 오류다.

2.1.1 駿河版 및 紀州版의 刊行 主體

2.1.1.1 德川家康

일본의 초기 활자 인쇄 문화의 발달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는 後陽成天皇와 함께 德川家康가 있다. 家康는 後陽成天皇의 영향을 받아서 치국책의 일환으로 문교 장려 정책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유학자를 우대하고 서적 간행에 치중하였다.

德川家康로 하여금 伏見版과 駿河版의 간행을 가능하게 하였던 요소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지식과 교양의 겸비이고, 다른 하나는 적기에 수입된 활자인쇄술이다.⁵⁾ 家康는 이 두 요소를 배경으로 武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文治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삼기 위하여 위정자를 위한 통치 관련 서적을 간행하였다.

文祿 元年(1592)부터 慶長 6년(1601) 사이에 豊臣秀吉의 2회에 걸친 조선 침략에 의하여 조선으로부터 동활자와 함께 인쇄도구·인쇄서적 등의 활자인쇄술이 수입되었다. 이 동활자는 秀吉에 의하여 後陽成天皇에게 헌상되었고, 天皇는 이를 이용하여 『古文孝經』(文祿칙판)을 간행하였다. 이어서 목활자(慶長칙판)를 조성하여 조선의 인쇄 방법으로 『日本書紀(神代卷)』·『勸學文』 등을 간행하였다.⁶⁾

德川家康는 後陽成천황의 인쇄사업에 영향을 받아서 조선의 인쇄방법에 의한 伏見版 목활자본을 간행하였다. 家康는 慶長 12년(1607) 駿府로 이주 후, 만년에 다시금 서적 간행 사업을 시작하였다. 천황에 헌상된 동활자를 빌려서, 이 활자와 함께 駿河版 동활자를 주도하여 『大藏一覽集』·『羣書治要』를 간행하였다.

駿河版 동활자의 주조와 서적 간행에는 여러 사람이 관여되어 있다. 德川家康의 명에 의하여 1차 주조에는 三要素元佶와 舟橋秀賢이, 2차와 3차 주조에는 林羅山⁷⁾과 金地院의 崇傳(本光國師) 등이 맡아서 하였다. 실제 주조 작업은 1차와 2차는 중국인 林五官이 한 것으로 추정되고, 3차는 林五官과 庄兵衛가 맡아서

5) 曹炯鎭, “日本 伏見版 古活字的 印刷技術 研究,” 69-71.

6) 曹炯鎭, “日本 勅版 古活字的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8-111.

7) 1583-1657, 林家の 祖. 羅山은 號인 信勝, 字는 子信, 道春은 出家한 後の 號.

하였다. 이 밖에도 京都의 台林寺에서 駿河로 초빙되어 간행에 참여했던 장인이 18명에 이른다.⁸⁾

2.1.1.2 德川賴宣의 紀州家⁹⁾

德川家康의 元和 2年(1616) 사후, 『大藏一覽集』 잔여분·『羣書治要』·동활자 일체는 駿府城(현 靜岡市에 있던 平城) 내에 보존하였다. 元和 5年(1619) 8월에 駿河守인 德川賴宣가 紀州(紀伊國의 별칭. 현 和歌山縣·三重縣의 南部)로 전봉될 때, 駿河版 동활자·『大藏一覽集』 100부·『羣書治要』 등을 和歌山城(현 和歌山縣 和歌山市에 있는 성)로 가져갔다.¹⁰⁾

그 후, 弘化 3年 봄, 紀州藩에서 藩의 督學인 山本元恒 등 儒官 10여 명이 駿河版 『羣書治要』를 저본으로 하여 駿河版 동활자와 새로이 보각한 목활자로 『羣書治要』를 간행하였다.¹¹⁾ 이를 紀州版이라 칭한다.

2.1.2 駿河版 및 紀州版의 刊行 地域

2.1.2.1 駿河版

駿河版이란 德川家康가 駿河國 駿府에서 간행한 판본을 지칭한다. 그러나 家康의 행적을 분석하면 駿河版을 간행하기 위한 준비는 駿府에서 착수한 것이

8) 이들은 후에 귀경하여 활자인쇄 발전에 공헌하였다. 예를 들어, 교정을 담당했던 壽閑은 元和 3년(1617)에 『元亨釋書』를, 조각 담당의 台林은 『謠抄』와 元和 3-4년(1618)에 『法華三大部科解』를, 조판 담당의 二兵衛는 元和 4년에 『城西聯句』·元和 7년(1621)에 『刊三千句』·寬永 元年(1624)에 『古文尙書抄』·寬永 4년(1627)에 『職原私抄』 등을 각각 직접 간행하거나 간행에 참여하였다.

9) 德川將軍의 일가를 三家 또는 御三家라 칭하는데, 尾州家(愛知縣 名古屋)·紀州家(和歌山縣 和歌山)·水戶家(茨城縣 水戶)이다.

10) 이와는 별도로 德川秀忠은 後水尾天皇에 『群書治要』를 봉헌하기도 하였다. 元祿 3년(1690)에는 紀州家の 2대인 光貞이 『群書治要』를 豊宮崎文庫에 기증하였다. 天明년간(1781-1788)에는 尾張藩에서 번각되었다.

11) 元恒, “活字銅版群書治要序,” 日本弘化3年紀州版『群書治要』卷頭 수록.

아니었다. 家康은 66세가 되던 慶長 12년 7월 京都 교외의 伏見 圓光寺에서 駿府로 이주하는데, 駿河版 동활자의 1차 주조는 慶長 10년(1605)부터 이미 준비에 착수하여 1년여에 걸쳐서 일본 최초의 동활자 91,261개와 부속용구를 慶長 11년에 완성하였다. 즉 駿河版 동활자의 1차 주조는 伏見 圓光寺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적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은 없다. 대체로 활자는 서적 간행의 수요가 있을 때 조성하므로, 조성 후 곧 서적을 간행하는 것이 통례다. 그러나 駿河版은 1차 주조 후 서적을 간행한 사실이 없는데,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駿河版 동활자의 2차 주조는 家康가 駿河國 駿府로 이주한 지 8년 후인 慶長 20년(1615) 10,368개를 완성하고, 목활자 5,889개도 함께 조성하였다. 그리하여 1차의 재고분 89,814개를 합하여 총 106,071개로 慶長 20년 『大藏一覽集』 11권¹²⁾ 125부를 간행하였다. 즉 駿河版 동활자의 2차 주조와 『大藏一覽集』의 간행은 駿府에서 완성하였다.

駿河版 동활자의 3차 주조는 元和 2년 13,000개를 완성하여 1·2차 재고분 106,071개를 합하여 총 119,071개로 『羣書治要』 47권 약 100부를 간행하였다. 즉 駿河版 동활자의 3차 주조와 『羣書治要』의 간행은 駿府에서 완성하였다.

그러나 德川家康은 元和 2년 4월 17일, 『羣書治要』의 완간 직전에 駿府城에서 사망하였다.

2.1.2.2 紀州版과 그 이후

元和 5년에 駿河守인 德川賴宣에 의하여 紀州 和歌山城으로 옮겨진 駿河版 동활자는 弘化 3년 紀州版 『羣書治要』의 간행에 사용되었다. 즉 紀州版 『羣書治要』는 紀州에서 간행하였다.

明治維新(1868년) 이후 紀州家가 東京로 이주한 후, 駿河版 동활자와 부속용구는 駿河版 『羣書治要』 등과 함께 明治 31년(1898) 東京都 港區 麻布의 德川賴倫 자택에 설립한 도서관인 南葵文庫¹³⁾에 보관되었다. 昭和 15년(1940) 南葵

12) 목록 1권, 본문 10권인데, 소장처의 목록에 따라서는 10권으로 저록한 경우도 있다.

文庫 해체 시, 東京 소재 凸版印刷(주)에 양도된 후, 昭和 17年(1942)에는 「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 권두의 「般若心經」을 300부 간행하였다. 昭和 19年(1944)에는 「蘇峰詩集」를 300부 인쇄하였다.¹⁴⁾ 즉 東京에서 2종의 서적을 간행하였다.

2.1.3 駿河版 및 紀州版의 刊行 時期

2.1.3.1 駿河版

駿河版은 동활자본인 까닭에 간행을 위한 동활자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였다. 駿河版 동활자의 1차 주조는 慶長 10년 4월부터 준비에 착수하여 1년 여에 걸쳐서 慶長 11년 6월 4일에 완성하였다.

駿河版 동활자의 2차 주조는 慶長 20년 3월경에 완성하였다. 1차 주조의 재고분을 함께 이용하여 慶長 20년 6월 「大藏一覽集」 11권 125부를 간행하였다.

駿河版 동활자의 3차 주조는 元和 2년 4월경에 완성하였다. 1·2차 재고분을 함께 이용하여 元和 2년 6월 「羣書治要」 47권 약 100부를 간행하였다.

2.1.3.2 紀州版과 그 이후

弘化 3年 봄, 駿河版 동활자와 새로이 보각한 목활자를 이용하여 紀州版 「羣書治要」를 간행하였다.

昭和 17년에는 「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 권두의 「般若心經」을 300부 인쇄하였다.

昭和 19년 12월에는 駿河版의 銅小字와 추가로 보각한 목활자로 「蘇峰詩集」를 300부 인쇄하였다.

13) 明治 41년(1908)에 공개하였다.

14)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東京: 柏書房, 2000), 64-65.

2.1.4 駿河版 및 紀州版의 刊行 手段

기본적으로 동활자를 이용하였다. 이 동활자는 3차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주조되었다.¹⁵⁾ 1차 주조는 慶長 11년에 91,261개(大字 55,360개, 小字 35,895개로 함께 오차 6개)를, 2차 주조는 慶長 20년에 10,368개(대자 8,844개, 소자 1,514개, 丁付字 10개)를, 3차 주조는 元和 2년에 13,000개를 주조하였다. 1차의 유실 분을 빼면 총 113,182개이다.

이밖에 목활자도 동활자의 2차 주조 시에 5,889개를 조성하여 혼용하였다. 이는 동활자의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한 보자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동활자와 합하면 총 119,071개이다.

駿河版 동활자의 재질은 구리(Cu)가 주성분이 되, 육안으로 직관한 색상에서 보면 대자의 경우 붉은 기운은 많이 있으나 순동은 아닌 듯하다. 즉, 순동에 가까운 95% 이상의 붉은 활자와 황동에 가까운 70~80% 정도의 연붉은 활자가 섞여 있다. 전체적으로 황동이긴 하되 일반적인 황동보다는 구리의 비율이 높아져 다소 더 붉은 기운을 띄고 있다. 小字의 경우는 大字보다는 약간 더 붉은 기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순동에 가까운 것과 연붉은 황동 색상의 경우도 섞여 있다. 함금비율이 균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차에 걸친 주조에 사용된 금속의 함금성분이 동일하지 않았던 결과로 추론된다. 전자선 마이크로 아나라이저에 의한 비파괴 분석방법의 분석결과¹⁶⁾는 구리 55.6~76.1%, 납(Pb) 5.6~23.0%, 주석(Sn) 6.5~13.1% 등이다.

이 동활자는 家康의 사후, 『大藏一覽集』 잔여분, 『羣書治要』 등과 함께 駿府 성 내에 보존되다가, 元和 5년에 紀州 和歌山城으로 옮겨진다. 弘化 3년 7월 26일의 벼락으로 和歌山城 天守臺가 소실될 때, 2/3가 함께 소실되었다. 타고 남은 동활자 1/3과 인판 등 부속용구는 明治維新 이후 紀州家가 東京로 이주한 후 明治 31년에 개설한 南葵文庫에 보관되었다. 南葵文庫는 大正 13년(1924)

15) 주조 과정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曹炯鎮, “日本 駿河版 銅活字的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95-102 참조.

16)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130-131.

동경제국대학부속도서관에 기증되어, 현재 동경대학도서관 소장 특수문고의 하나가 되었다. 동시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되는 銅大字 111개, 銅小字 207개, 목활자 大字 70개 목활자 小字 37개 합계 425개 및 印版 1면, 銅界線 20개, 銅匡郭 4개 1조 등이 東京大學 總合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昭和 15년 南葵文庫가 해체될 때, 활자 37,979개(銅大字 1箱 866개, 銅小字 17箱 31,300개, 어미자?를 포함한 목활자 5箱 5,813개¹⁷⁾)와 印版 2면, 銅界線 88개, 銅匡郭 18개 및 『羣書治要』 41권 등이 東京 소재의 凸版印刷株式會社에 양도되었다. 昭和 19년 7월 6일에는 중요미술품으로 인정되었다. 昭和 37년(1962) 6월 21일에는 文化廳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¹⁸⁾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향후 현존 활자 실물을 연구할 때 자세히 분석하고자 한다.

2.2 駿河版 및 紀州版의 數量과 版式

2.2.1 駿河版 및 紀州版의 數量

(1) 『大藏一覽集』 11권 11책

최초의 駿河版 銅活字本으로 慶長 20년 6월에 간행되었다. 駿河版 『大藏一覽集』 간행의 직접 동기는 慶長 19년(1614) 8월 6일 金地院의 崇傳이 『大藏一覽集』을 진상한 일이다. 徳川家康는 이를 보물로 여겨 1~200부 간행을 林羅山에게 명하여 慶長 20년 3월에 착수하였다. 이를 위하여 興津의 清見寺 등에 물품 지원을 요청하였다. 간행의 실무는 壽閑·台林 등 18명의 장인이 종사하였다. 慶長 20년 6월 125부가 완성되어 여러 사찰에 분배하고, 절반 정도는 훗날 紀州家에 귀속되었다.

17) 흑자는 이 목활자에 동활자 주조용 어미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64. 그러나 필자가 東京大學 總合圖書館 소장 목활자 대자 70개 중에서 『羣書治要』 卷之一에 출현하는 문자와 중복되는 12개(簡冠觀篤辭笑識如節就豐虛)를 정밀 대조한 바, 자양이 전혀 유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목활자는 동활자의 어미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18) 文化廳編, 『國寶·重要文化財總合目録: 美術工藝品編』(東京: 第一法規出版(株), 1980), 295.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흑구와 어미가 일체식, 판 크기: 20.7×15.4cm, 판심: 大藏一覽一 (장차). 판심은 일체식, 판심제는 소자.

(2) 『羣書治要』 47권 47책

元和 2년 6월에 간행되었다. 원래는 50권인데, 권4·13·20의 3권 3책이 결실되어 47권 47책이다. 元和 2년 정월 19일, 羅山과 崇傳에게 『羣書治要』 간행을 명하여, 활자인쇄 용구를 보충하고 京都의 板倉勝重에게 장인의 주선을 의뢰하여 木匠·조각장·균자(조판)장·인출장 등 20명과 2월 23일 城内의 三之丸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교정은 五山の 승려를 동원하여 5월 말에 작업을 완성하였다. 완성 직전인 4월 17일 家康는 사망하였다.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삼엽화문쌍어미, 흑구와 어미가 일체식, 판 크기: 20.7×15.3cm, 판심: 羣書治要一 (장차). 판심은 일체식, 판심제는 극소자.

(3) 『羣書治要』 47권 25책

弘化 3년에 간행되었다. 駿河版이 그렇듯, 원래는 50권인데, 권4·권13·권20의 3권이 결실되었다.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의 경우, 제1책의 앞부분에 수록된 “活字銅版羣書治要序” 제5엽하, 제1행 제11자부터 제3행까지에 “今茲弘化丙午仲, 春竣功謹以上, 督學臣山本元恒謹序”의 간기가 있다.

사주쌍변, 유계, 8행 17자, 소주쌍행, 대흑구, 상하내향흑쌍어미, 흑구와 어미가 일체식, 판 크기: 21.1×15.5cm, 판심: 羣書治要一 (장차). 판심은 일체식, 판심제는 극소자.

(4) 『般若心經』

昭和 15년 南葵文庫가 해체될 때, 駿河版 銅活字와 印刷용구 등은 凸版印刷株式會社에 양도되었다. 그 2년 후인 昭和 17년에 300부 간행되어, 『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의 권두에 수록되었다.

(5) 『蘇峰詩集』

昭和 19年 12월에 駿河版의 銅小字와 추가로 보강한 목활자로 300부 인쇄되었으나 제본 단계에서 戰火로 소실, 관계자에게 견본으로 증정한 몇 부 외에는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¹⁹⁾

오늘날 각 기관의 소장목록과 연구문헌의 검색을 통하여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駿河版 銅活字로 간행된 서적은 <표 1>과 같다. 이중 본 연구를 위하여 3종 10판본을 실시하였으며, 서영도 검하여 참고한 것은 2종 3판본이다.

<표 1>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本 目錄

書名	卷-冊數	版本事項 ²⁰⁾	비고
1 羣書治要	47-47	元和2年(1616)駿河版銅活字印本	(1) WA7-16 (2) 三Ai1 (2) 三Ai2 (3) 297-21 (3) 別34-1 (4) 404-28 (4) 404-29 (4) 510-26 (5) 35-25-574 ²¹⁾ (6) 102-1敬 (8) 57X-26 (9) Aoo-6254 (9) Aoo-6255 ²²⁾ (10) 329.2- 11 (12) 恭仁42
2 大藏一覽集	11-11	慶長20年(1615)駿河版銅活字印本	(3) 311-9 (4) 404-32 ²³⁾ (5) 23-36-285 ²⁴⁾ (9) Aoo-6274 ²⁵⁾ (10) 183- 1317
3 羣書治要	47-25	弘化3年(1846)紀伊藩以駿河版銅活字印本	(7) 子-X-4-1 ²⁶⁾ (11) 310-5 ²⁷⁾ (13) 平圖6500-6521 ²⁸⁾
4 般若心經		昭和17年(1942)凸版印刷(株)以駿河版銅活字印本	『積翠先生華甲壽記念論纂』의 권두에 수록
5 蘇峰詩集		昭和19年(1944)凸版印刷(株)以駿河版銅活字印本	제본 단계에서 戰火로 소실, 견본 몇 부만 전함

비고: 판본의 소장처와 청구기호. 실사 판본에는 실선 밑줄, 서영 참고 판본에는 점선 밑줄.
 (1) =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2) = 東洋文庫, (3) = 內閣文庫, (4) = 書陵部, (5) = 大東急紀念文庫, (6) = 靜嘉堂文庫, (7) =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8) = 慶應義塾大學圖書館, (9) =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0) = 天理大學附屬圖書館, (11) = 和歌山大學圖書館, (12) = 杏雨書屋, (13) = 中華民國國立故宮博物院圖書文獻館.

19)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64-65.

20) 일본의 판본사항 저록 방식은 활자본일지라도 ‘모년모주체刊’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모년모주체刊行’의 의미다. 본 연구에서는 판본의 생산 수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활자본의

이상에서 보면 고향자판이 2종, 駿河版 동향자로 간행한 근세 인본이 3종이다. 권 책 수를 알 수 없는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크기는 11권 11책에서 47권 47책까지 대형의 저술이다.

2.2.2 駿河版 및 紀州版의 版式 上 特徵

駿河版 內閣文庫本(297-21·311-9)과 紀州版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310-5)을 근거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表紙 題簽 書名

표지 제침에 인쇄된 경우가 『羣書治要』 2종, 표지에 묵서된 경우가 『大藏一覽集』 1종이다. 내각문고본 『羣書治要』의 제침은 도각의 흔적과 묵색이 같은 점으로 보아 광곽과 제침제 모두 목판인쇄하였다. 사주쌍변의 판 크기는 외곽이 18.3×3.9cm, 내곽이 17.6×3.1cm이다. 권차(책차)는 묵색이 제침제와 달리 더욱 검고 부드러우면서 시계방향으로 약간 틀어진 점과 “關”·“十”·“四” 등의 재사용된 자양은 같지만 위치(거리와 각도)가 다른 점으로 보아 하나의 활자로 날인한 듯하다. 이 활자는 자양·크기(약간 큼)·서체(제침은 扁體, 본문 소자는 長體) 등이 본문의 소자와 다른 별개의 활자이다. 이들 제침은 표지를 개장할 때 원래의

경우는 ‘모년모주체모활자(모년鑄 또는 모년刻) 印本’으로 기록한다. 왜냐하면 刊本 또는 刻本은 목판본을 의미하며, 활자본은 활자의 제작 시기와 인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 21) 23책만 소장.
- 22) 45책.
- 23) 11권 10책만 소장.
- 24) “慶長19年刊”으로 기록. 10권 8책만 소장.
- 25) 권2·4의 2책만 소장.
- 26) 제1책 앞에 수록된 “活字銅版羣書治要序” 총 5엽이 없다.
- 27)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소장본은 권1 제9엽이 탈락하였고, 권19는 총 31엽임에 비하여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은 권1 제9엽을 보충하였고, 권19는 총 30엽이다.
- 28) 22책으로 분책.

것을 떼어 붙인 듯하다. 권 6·9·36·39·40·41·45·50은 인쇄한 제첩 광곽에 제첩제와 권차(책차)를 묵서하였다.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 『羣書治要』의 제첩은 도각의 흔적으로 보아 광곽은 목판인쇄하였다. 사주쌍변의 판 크기는 외곽이 18.6×3.7cm, 내곽이 18.2×2.8cm이다. 제첩제는 활자로 인쇄하였는데, 제1~6책을 차례로 4회 반복 사용하였고, 제25책은 제2책의 것을 사용하였다. 제첩제의 인쇄에 사용한 활자 24개 중, 제3·6책의 “要”는 목활자임에 비하여, 제1·2·3·5책과 제4·6책의 “羣”, 모든 책의 “書”와 “治”, 제1·2·4·5책의 “要”는 각각 같은 자양으로 미루어 같은 어미자로 주요한 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匡廓 형식

3종 모두 사주쌍변이다.

(3) 界線 유무

3종 모두 계선이 있다.

(4) 行數

3종 모두 반 엽에 8행이다.

(5) 字數

3종 모두 반 엽에 17자이다.

(6) 小註 형식

3종 모두 쌍행 형식이다.

(7) 版口 형식

3종 모두 판심에 가득 찬 대흑구이다.

(8) 魚尾 형식

駿河版 2중은 상하내향3엽화문쌍어미이고, 紀州版은 상하내향흑쌍어미이다. 이 점이 두 판본의 차이점이다.

(9) 기타 특징

3중 모두 흑구와 어미가 연결되어 있고, 양측의 계선을 포함한 일체식 판심을 사용하고 있다. 판심제는 「大藏一覽集」이 소자임에 비하여, 「羣書治要」 2중은 극소자를 사용하고 있다.

「羣書治要」는 두 판본의 곳곳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駿河版은 권두제 다음에 撰者名이 없는데, 紀州版은 권두제 다음 행인 제2행에 “秘書監鉅鹿男臣魏徵等奉勅撰”의 13자가 있다. 그 결과 권1의 경우, 제4엽하 제6행까지 한 행씩 밀려 조판되어 있다. 駿河版 권1 제4엽하 제6행에 “也” 1자가 식자되어 있는데, 紀州版은 제4엽하 제6행 제18자에 이를 밀집 조판하여, 제7행부터는 두 판본이 같게 되었다. 또한 京都大本의 권1 제9엽이 탈락하여 어떤 현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駿河版 제9엽하 제8행이 紀州版에서는 제10엽상 제1행에 조판되어 있다. 이하 권1의 본문이 끝나는 제24엽하 제5행까지 한 행씩 밀려 조판되어 있다. 권말제의 위치도 차이가 있다. 駿河版은 권1 제24엽하 제4행에서 본문이 끝나고 한 행 띄어서 제6행에 권말제가 있음에 비하여, 紀州版은 제5행에서 본문이 끝나고 두 행 띄어서 제8행(말행)에 권말제를 조판하였다. 이 밖에도 곳곳에서 조판상 1~2자의 출입이 나타나고 있다.

3. 駿河版 古活字의 製作技術

紀州版 「羣書治要」는 간행 연대를 기준으로 하면 근세 활자판이다. 하지만 駿河版 동활자로 간행한 것이면서 근세의 유일한 고활자판 금속활자본이므로, 그 인쇄 기술을 駿河版과 함께 서술하기로 한다.

인쇄기술에 대하여 활자 인쇄의 3요소인 활자의 제작, 조판 = 인판의 제작, 인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기술 수준을 분석한 후, 이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인쇄 기술을 평가하였다.

3.1 材質과 製作 方法

3.1.1 字樣과 字跡의 일치 여부

모든 판본에서 자양이 일치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일치하거나 다른 경우가 동시에 나타나기도 한다. 문자의 크기가 다른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駿河版 『羣書治要』 권1 제1엽상의 “元”·“天”·“君”·“子”·“龍”은 자양이 일치한다. “利”·“日”·“大”는 다르다. 이에 비하여 “九”·“乾”은 일치하거나 다른 경우가 동시에 있다. 『大藏一覽集』 권1 제1엽상에 10개의 “第”가 있는데, 행-자수(이하 같음) 1-7·7-13과 3-1·5-6·7-6·8-6·8-13과 5-13·6-6·6-13은 자양이 각각 같아서 3종의 자양이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 권1 제1엽하에서도 “光” 3개는 2종의 자양이, “飛” 3개는 1종의 자양이, “地” 4개는 1종의 자양이, “天” 4개는 2종의 자양이 나타나고 있다. 자양이 다른 경우는 복수의 어미자를 사용하여 주조한 결과로 보인다. 즉 2차에 걸친 보주 시에 어미자를 각각 조성하여 사용한 결과일 수 있다. 또한 목활자를 병용한 결과일 수도 있다. 자양이 일치하는 경우는 완전히 같아서 동일한 어미자로 반복 주조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표 2> 駿河版 동활자 字跡의 일치 여부²⁹⁾

駿河版 『羣書治要』 권1 제1엽상			『大藏一覽集』 권1 제1엽상		
3-2	8-16		1-7	7-13	
元	元		第	第	
3-4	6-11		5-6	7-6	8-13
利	利		第	第	第
4-3	6-5	8-6	5-13	6-6	6-13
九	九	九	第	第	第

목색은 균일하지 못하여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육안으로 직관하여도 금속 재질로부터 반영된 것임을 느낄 수 있지만, 착묵 정도가 적합한 곳을 찾아서 확대 경으로 세심히 관찰하면 금속 재질에서 착묵된 것임을 확연히 구분할 수 있다.

3.1.2 刀刻의 痕迹

날카로운 도각의 흔적이 필획이 교차하는 곳에서 드물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駿河版 『羣書治要』 序 제1엽하 5-10의 “未”· 권1 제1엽하 6-6의 “亨”· 7-3의 “事”· 제3엽상 5-13의 “坤”· 제20엽하 3-4의 “其” 등이다. 『大藏

29) 자적의 크기는 편집상, 미세한 오차가 있을 수 있다. <표 3>·<표 5>도 같다.

一覽集」 권1 제1엽하 7-5의 “復”은 말획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2-5·3-8·6-10·8-4의 “地”와 5-16·6-6·7-6의 “飛”처럼 필획이 매끈하지 못한 문자도 부분적으로 보인다. 이는 주조용 어미자의 조각 상태가 날카로웠거나, 목활자를 병용한 결과일 수 있다. 또는 활자 주조 후 너덜이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紀州版『羣書治要』에는 도각의 흔적이 필획의 윤곽과 교차하는 곳에서 역력한 경우가 섞여있다. 예를 들면, 권1 제1엽하 1-7의 “亢”·2-1의 “物”·2-5의 “統”·2-9의 “雨”·2-12의 “物”·2-13의 “流”·6-4의 “物”·7-6의 “亨” 등이다. 이들은 필획이 굵고 목색은 진하며 하얀 반점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부족한 활자를 목활자로 보각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3> 駿河版的 刀刻 痕迹

駿河版『羣書治要』		『大藏一覽集』		紀州版『羣書治要』	
권1 제1엽하		권1 제1엽하		권1 제1엽하	
6-6	7-3	7-5	6-6	1-7	6-4

3.1.3 木理의 有無

목리는 駿河版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육안으로 관찰하면 목리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으나, 확대경을 이용하여 세심히 관찰하면 문자면을 손질한 흔적이나 먹솔의 흔적임을 알 수 있다.

紀州版『羣書治要』에서는 도각의 흔적이 역력한 문자에서 목리도 역력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3.2 熟練度

3.2.1 筆書體의 筆意 表現

필획의 윤곽과 굵기의 균정도를 살펴보면, 모든 판본에서 대소자 모두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다.

3.2.2 文字의 美感

楷正한 해서체의 균형을 잘 유지하여 세련미를 갖추고 있으나, 다소 균형을 잃은 거친 경우가 있다. 이로 미루어 어미자 제작 기술의 편차나 임시 보각한 적이 있는 듯하다. 즉 어미자 제작 기술의 숙련도에 편차가 있어 보인다.

필획은 균정하지만, 간혹 조각한 것처럼 고르지 못한 문자가 있다. 대체로 균정한 경우는 필획이 굵다. 이에 반하여 駿河版 『羣書治要』 권1 제1엽상 3-1의 “乾”·4-3의 “九”·4-12의 “揚”·6-7의 “飛” 등처럼 고르지 못한 경우는 가늘며 거칠다. 이로 미루어 어미자의 조각술은 각수에 따라 기술상의 편차가 있어 보인다.

3.3 기타

3.3.1 例外的인 活字

금속활자의 주조기술 수준은 정상적으로 주조에 성공하여 인출된 자적만으로는 완전한 측정이 쉽지 않다. 역설적이게도 문자 필획이 어긋나는 등 불완전한 경우나, 주조 실패의 비율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당시에 완전히 실패한 활자는 폐기하였을 것이므로, 오늘날엔 그 기술 수준의 완전한 측정 또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수 등의 불완전한 경우를 추출하면 당시의 기술 수준을 불완전하나마 엿볼 수 있을 것이다.

駿河版은 인본상의 자적을 자세히 분석하면 주형이 부서지거나 깨져서 주조된 불완전한 활자를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駿河版 『羣書治要』 권1 제1엽상 3-9의 “曰”(제6엽상 1-16·제14엽하 7-3·제19엽하 2-11에서 재사용)·3-11의 “行”·3-15의 “以”·제1엽하 8-1의 “以”(제4엽상 1-11에서 재사용)·제2엽하 3-4의 “悔”·제3엽상 2-3의 “其”·3-3의 “曰”·3-8의 “子”·4-11의 “坤”·5-11의 “言”(제19엽상 8-4에서 재사용)·제3엽하 5-10의 “子”(제9엽상 3-10에서 재사용) 등이다. 이같이 필획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거나 깨진 상태의 활자가 제1엽의 대자 170개 중에서 利曰行子以九乾天雲施物始天性和首庶萬文元嘉君子足以人以事 등 28개에 이른다. 유사한 사례는 이후에도 무수히 많아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주조기술이 능숙하지 못한 단계의 시험작인 듯 완성과 미완성의 활자가 뒤섞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는 착목이 불완전한 결과인가를 구분하여야 하나, 이러한 현상이 반복 출현하는 점으로 보아 활자 자체의 문제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착목 이후의 인출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실수는 반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조 후, 너덜이 修整 과정에서 미숙한 요소가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가 다수 보이는 점에서 기술적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근거하면 駿河版 동활자는 주조용 주물사를 다지는 숙련도나 주물사에 첨가하는 수분이나 염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결과, 주조 과정에서 주형이 미세하게 부서지면서 활자를 완전하게 주조해 내지 못하였고, 그 흔적이 자적에 반영된 것으로 추측된다.

3.3.2 活字 胴體와 文字의 크기

문자 간의 간격을 살펴보면, 대자는 상하 간격이 약간 있고, 소자는 더 크다. 또 간혹 長形의 문자가 있는 점으로 보아 활자 동체의 크기와 문자의 크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문자가 활자 동체의 문자면에 가득 차도록 주조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은 활자의 재질을 막론하고, 일본 활자의 특징 중 하나이다.

3.4 綜合 評價

금속활자 구조의 기본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듯하나, 3차에 걸친 구조의 기술 수준이 동일한 것은 아닌 듯하다. 특히 주물사의 구조 조건을 맞추는 등의 기술이 아직 숙련되지 못한 수준으로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4.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組版技術

4.1 字跡의 從行과 橫列

4.1.1 從行

모든 판본이 대체로 가지런한 경우도 있으나, 계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좌우로 치우친 현상이 두드러진 경우도 적지 않게 보인다. 활자본의 특징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 이로 미루어 활자 동체의 크기가 고르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4.1.2 橫列

駿河版은 대체로 가지런히 맞추고 있으나, 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보인다. 紀州版은 대소자에서 다소의 굴곡이 적지 않게 보여 駿河版보다 수준이 낮아 보인다.

4.2 字跡의 安置 角度

駿河版 『羣書治要』는 빼뜯어진 문자가 간혹 보이는데,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

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엽 당 평균 대자 2~3개, 소자는 엽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3~5개 정도 보인다. 『大藏一覽集』은 빼뜯어진 정도가 심하지는 않으나, 수량은 적지 않게 보인다.

紀州版 『羣書治要』는 정도의 차이는 심하지 않지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드러진 경우는 1~2개 정도 나타나고 있다.

4.3 文字面과 印出面의 水平

4.3.1 文字面の 水平

駿河版은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대소자에서 모두 간혹 보인다.

紀州版은 부분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엽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인다. 이 현상이 없는 엽도 있고, 권1 제5엽에는 8개(대소자 포함), 제6엽은 30개 정도에 이르기도 한다. 부분 필획이 연한 경우는 적지 않다.

4.3.2 印出面의 水平

駿河版의 인출면으로부터 반영된 묵색을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진한 문자와 연한 문자는 물론 일부 필획이 보이지 않는 현상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농담 차이는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다. 소자에서는 문자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농담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羣書治要』의 경우, 권차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편차는 더 커진다. 『大藏一覽集』의 경우는 한 엽에서 묵즙이 번질 만큼 묵색이 진한 문자가 있는 반면에, 일부 필획이 인출되지 않은 연한 문자가 공존하는 엽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권2 제46엽·권3 제10엽·권4 제28엽·권7 제54엽·권8 제11엽 등이다. 이로 미루어 사면이 방정한 육면체 활자이긴 하나, 높이는 다소 편차가 있고 기울어진 경우도 있어서 균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紀州版의 경우, 농담 차이는 대체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목즙이 물려서 진한 경우와 안보일 듯 희미한 경우가 공존하는 엽이 자주 보인다. 목색의 농담 차이가 활자본임을 알 수 있을 만큼 적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다. 대체로 도각의 흔적으로 미루어 목활자로 보이는 문자는 매우 진하고 나머지 문자들은 진하거나 연한 경우가 혼재하고 있어서 인출면이 고르지 못하여 활자본의 특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판본에서 광곽의 내선과 계선이 간혹 인출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紀州版의 경우, 권16 제24엽하와 제25엽은 계선이 거의 인출되지 않았다.

4.4 印版 匡廓의 꼭지점

사변이 조림식 광곽인데, 모든 판본에서 네 꼭지점이 약간 벌어져 있는 缺口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駿河版과 紀州版 『羣書治要』는 3~5mm 정도, 『大藏一覽集』은 2~5mm 정도이다.

식자 방법으로 조임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임 방법은 일부 판본에 잠목 형태로 나타난 흔적을 보면 짐작이 가능하다. 駿河版 『羣書治要』의 경우, 상변을 고정하기 위하여 17~22mm 정도의 광곽 위에 버팀목을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大藏一覽集』은 화문어미의 반복되는 현상을 관찰하면, 10여개의 인판을 번갈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4.5 기타

4.5.1 本文 字跡의 顛倒와 脫落

駿河版 『羣書治要』 권9 제13엽하 4-7右의 소자 “林”은 180도 전도되었다.

4.5.2 校正의 失手

駿河版『群書治要』의 간행을 위하여 교정에 특히 주의하였음을 『本光國師日記』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群書治要』의 저본은 金澤文庫 소장의 清原教隆鈔本을 새로 전사한 것인데, 원본에 비하여 오식이 많아서 주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³⁰⁾ 이는 家康의 사망에 임박하여 완성을 서둘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물을 조사해 보면, 전도된 활자 외에도 적지 않은 오자가 보인다. 권32의 제26~30엽의 관심 장차가 “十一”~“十五”로 잘못 되어 있다. (3)297-21은 권46 제2엽상 6-11의 “土”를 “士”로 교정하였다.

紀州版『羣書治要』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소장본은 권40 제3엽의 관심 권차에 “十”이, 제17엽은 “四”가 탈락되어 있다. 권19 제30·31엽의 관심에 장차가 “二十九”·“三十”으로, 권31 제29엽은 “二十八”로, 권40 제38엽은 “三十”으로 잘못 되어 있다. 이에 비하여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은 권40 제17엽의 관심 권차에 “四”가 여전히 탈락되어 있는 것 외에 기타의 오류는 모두 바로 잡았다. 본문의 오자를 뜯어내고 종이를 붙인 후 바른 문자를 날인하였는데, 목정이 된 곳이 많다.

紀州版『羣書治要』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소장본과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을 비교하면, 본문의 내용도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권1만 비교하면 <표 4>와 같다. 이로 미루어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소장본은 교정본으로, 이를 인출할 때 부족한 문자는 공란이나 목정으로 처리한 후, 교정 또는 수정을 거쳐서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을 정식으로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³¹⁾

30) 川瀬一馬, 『増補古活字版之研究』, 230. 『群書治要』의 간행을 위한 활자 주조의 저본은 『本光國師日記』에 의하면 伏見 圓光寺에서 1차 주조할 때 사용한 『後漢書』이다.

31) 이 점에서 和歌山大學圖書館 소장본은 권19가 총 30엽으로 정확하데,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소장본의 총 31엽은 제29엽이 두 장 중복으로 들어간 것을 필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표 4> 紀州版 「羣書治要」 京都大本과 和歌山大本의 본문(권1) 내용 비교

	(7)子-X-4-1	(11)310-5
活字銅版羣書治要序	없다	있다
제4엽상 6-5	之	생략, 이하 1자씩 앞당겨짐
제4엽상 7행 본문	2자에서 끝남	1자에서 끝남
제4엽상 8-2	공란	“象”으로 채워짐
제4엽하 2-2	공란	“象”으로 채워짐
제6엽상 1-16	공란	“曰”로 채워짐
제9엽	탈락	보충
제12엽하 7-8	공란	“革”으로 채워짐
제17엽하 4-16우	“曲”이 안보일 듯함	선명하게 인출됨
제18엽하 1-17우	“神”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불가	선명하게 인출됨
제18엽하 5-16좌	묵정	없어짐

4.5.3 組版 및 印出 順序

駿河版을 세심히 관찰하면, 자적에 빗살무늬가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주조 후 최종 손질 단계로 착목이 잘 되고 평평하도록 자면을 수정할 때 입자가 거친 사포를 사용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대체로 활자의 최초 또는 초기 사용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다. 두 번째부터나 여러 번 사용하게 되면 활자의 문자면에 묵증이 도포되어 평평해지거나 마모되어 무디어지므로 빗살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빗살무늬의 현상이 「大藏一覽集」 제2책 권1의 첫부분에는 나타나고 있지만, 제1책의 序・門目總類・目錄에는 묵색이 진하고 연한 부분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로 미루어 권1을 먼저 조판하여 인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4.6 綜合 評價

조판기술은 교정상의 실수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열악한 수준을 면한 정도로 주조술을 상쇄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5.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的 印出技術

5.1 墨色の 濃淡

5.1.1 全體의 墨色

전반적인 착묵 상태를 보면 모든 판본이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였는데, 지나치게 진한 엷도 다소 연한 엷도 있어서 농담 차이가 제법 보인다. 『大藏一覽集』의 경우, 문자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의 인출은 되었으나, 권1 제49·62엽처럼 불완전하게 착묵된 경우가 자주 보인다. 묵즙의 양이 알맞게 착묵된 문자를 보면 묵색이 매우 균정하고 금속활자용 유연묵의 질감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이로 미루어 금속활자용 묵즙은 개발했으되, 불완전하므로 농도를 진하게 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5.1.2 葉 간의 濃淡差

전체적으로 묵색이 진하지만, 너무 진한 엷도로 인하여 농담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고(駿河版 『羣書治要』), 다소 연하거나 더 진한 엷도로 인하여 농담 차이가 적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大藏一覽集』). 연한 엷에서는 부분적으로 문자가 거의 안보일 만큼 착묵이 안된 엷도 있어서 농담 차이가 커 보인다(紀州版 『羣書治要』).

5.2 墨汁의 번짐과 字跡의 깨짐

5.2.1 墨汁의 번짐

전체적으로 묵색을 진하게 사용하여서인지 번진 문자나 묵정이 된 문자가 간혹 보인다. 부분적으로 번진 엷이 적지 않게 꾸준히 보인다. 번짐은 권차의 뒤로 갈수록 심하게 나타난다. 한 엷 내에서 부분적으로 농담 차이가 있기도 한다(駿河

版『羣書治要』). 목즙이 번질 만큼 많이 도포된 경우도 꾸준히 보인다. 예를 들면, 권1 제25·41·55엽, 권2 제1·50·58엽, 권5 제10·21·25·35·43·64엽, 권6 제11·52엽 등이다(『大藏一覽集』). 진한 엽에서 드물게 부분적으로 번짐 현상이 보인다. 번진 문자도 간혹 있다(紀州版『羣書治要』).

5.2.2 墨汁의 쓸림

대체로 목즙의 쓸림 현상은 없으나, 일부 필획 간의 목즙이 다소 과한 경우가 있다(駿河版『羣書治要』). 번진 정도는 아니지만, 일부에 쓸림 현상이 자주 보인다. 그 결과 목색이 안정되지 못하고 균정하지 못하여 독서에 영향을 줄 정도이다(紀州版『羣書治要』).

5.2.3 字跡의 깨짐

문자마다 착묵 상태가 균정하지 못하고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 이 현상은 판본 전체에 걸쳐서 판면마다 이어지고 있다. 동일한 문자에서도 필획에 따라 착묵 상태가 달라서 같은 자양의 문자가 다른 활자로 인출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동일한 인판에서 인출한 복수의 판본을 비교하면, 하나의 활자에서 인출한 자적임에도 마치 다른 활자로 인출한 것처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駿河版『羣書治要』 권1 제2엽하 1-3의 “悔”·1-12의 “位”·1-16의 “民”·3-3의 “有”·3-6의 “君”·5-6의 “德”·5-8의 “日” 등이다(<표 5> 참조).

거의 모든 활자의 자면에 무수한 편흔이 생성되어 있어서 자적에 하얀 반점이 수두룩하다. 이 반점이 클 경우 자적이 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표 5> 동일한 활자에서 인출한 자적

		(1)WA7-16	(2)三Ai1	(3)297-21	(3)別34-1	(4)404-28	(9)Aoo-6254
권 1 제 2 엽 하	1-16	民	民	民	民	民	民
	3-3	有	有	有	有	有	有
	3-6	君	君	君	君	君	君
	5-6	德	德	德	德	德	德

부분적으로 착목이 매우 여리게 된 엽이 있다. 마치 묵즙을 한번 도포한 후, 두 번째 인출한 듯하다. 광곽이 손상된 듯 끊어져 보이는 곳도 있다. 예를 들면, 駿河版 『羣書治要』의 권28 제12·21·27엽, 권29 제1·30엽, 권30 제1·9·10·21·29·32·34엽, 권31 제1·2·10·13·14·17·28엽, 권32 제2·17·18엽 등이다. 아직 금속에 적합한 묵즙을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듯하다.

5.3 雜痕과 雜墨

잡목이 간혹 보인다. (일본)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 駿河版 『羣書治要』 권3 제34엽하 6-7·8자의 우측 소자(者乃) 사이에는 아무런 잡목이 없음에 비하여, 내각문고 소장본에는 가로 막대와 같은 잡목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내각문고

소장본의 다른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조판을 위한 활자 조임 등의 방편이 아니라 잡목임을 알 수 있다. 뒷부분에서는 제법 큰 잡목(駿河版 『羣書治要』) 등이 간혹 보인다(『大藏一覽集』). 紀州版 『羣書治要』는 기술적 요소를 추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잡목이 약간 보인다.

5.4 二重 印出

駿河版 『羣書治要』는 뒷부분에서 드물게 보인다. 『大藏一覽集』의 경우는 권1 제48엽상과 권9 제16엽에서 보인다. 紀州版 역시 간혹 드물게 보인다.

5.5 印出의 方向과 強度

5.5.1 印出의 方向

책지의 후면을 살펴야 관찰이 가능한데, 분석을 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판본이 목즙을 진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예상컨대 소장자의 허가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살펴보면 분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5.2 印出의 強度

駿河版의 경우, 인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강하게 인출하여 책지에 요철이 형성되면서 문자 필획의 측면이 반영된 경우가 있다. 紀州版의 경우, 대체로 부드럽게 밀었으나, 간혹 다소 힘껏 밀어서 필획 부분의 책지가 마찰로 인하여 마모된 곳이 드물게 보인다. 문자면의 측면이 반영되지는 않았다.

5.6 着墨의 均整度

모든 판본이 전반적으로 묵색은 진하면서, 착묵 상태가 그다지 균일하지 못하

여서 간혹 번집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 紀州版은 한눈에 불편을느낄 정도이다.

5.7 기타

駿河版의 경우, 목색이 진하게 착묵된 부분에서는 문자와 계선 주위가 노랗게 번져있는 흔적이 자주 보인다. 『大藏一覽集』의 경우, 권5 제69엽은 엽 전체가 노랗게 변하기도 하였다. 이는 목즙을 조제할 때 활자의 표면에 잘 착묵될 수 있도록 첨가한 기름이 번진 것으로 보인다.

『大藏一覽集』 권10 제99엽하부터 제103엽상까지는 손으로 판면을 접촉하면 먹이 묻어난다.

5.8 綜合 評價

모든 판본이 전반적으로 금속활자의 자적은 인출하고 있으나, 아직 불완전한 상태이며 착묵이 균일하지 못하고 진하거나 연한 현상이 전체에서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후반부로 갈수록 인출기술 수준이 더 떨어져서 열악함을 면한 수준이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인출상의 부정적인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금속활자에 적합한 목즙을 아직 완전히 개발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6. 駿河版 및 紀州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駿河版 銅활자의 인쇄 기술 수준은 앞에서 분석한 활자 인쇄 3요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중급이다.

7. 結論

이상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駿河版이란 徳川家康가 慶長 20년과 元和 2년에 駿府에서 동활자로 인출한 2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그러나 동활자의 주조는 慶長 11년·慶長 20년·元和 2년의 3차에 걸쳐서 완성하였다. 2차 주조 때에는 목활자도 조성하였다.

紀州版이란 紀伊藩이 弘化 3년에 駿河版 동활자로 간행한 1종의 판본을 지칭한다. 근세에도 2종의 서적을 인출하였다.

판식 상의 특징은 四周雙邊, 有界, 8行17字, 小註雙行, 大黒口, 3葉花紋雙魚尾(2종)와 흑쌍어미(1종), 一切式 版心 등을 사용하였다.

(2) 活字의 재질은 일치하는 자양과 목색의 현상으로 보아 주조한 금속활자이다. 도각의 흔적과 목리로 보아 목활자를 병용하였다. 製作技術은 필서체의 필의를 표현하고 있으며 문자의 미감도 세련된 수준이다. 그러나 주조기술이 미숙하여 금속활자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술 수준은 중상급.

(3) 組版技術은 字跡의 行列에 다소의 굴곡이 있다. 빼뺀 문자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墨色 濃淡은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활자본의 특징을 한눈에 알 수 있다. 교정이 불완전하다. 기술 수준은 중중급.

(4) 印出技術은 전체적으로 목색이 진하면서 농담의 차이가 크다. 墨汁의 번짐과 쓸림도 보이지만, 깨짐은 거의 모든 자적에서 볼 수 있다. 잡묵과 이중 인출은 드물게 보인다. 착묵 상태가 그다지 균정하지 못하다. 기술 수준은 중하급.

(5) 印刷技術 수준을 종합하면 중중급에 해당한다.

<참고 문헌>

1. 목록·해제·도록류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漢籍目錄』.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9.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和漢圖書目錄: 昭和14年(1939) 2月-昭和 25年(1950) 3月』.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1973.

慶應義塾圖書館編. 『慶應義塾圖書館藏和漢書善本解題』. 東京: 慶應義塾圖書館, 1958.

(中華民國) 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普通舊籍目錄』.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0.

(中華民國) 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古籍資料庫』.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2013년 검색.

(中華民國) 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舊籍總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83.

(中華民國) 國立故宮博物院編輯. 『國立故宮博物院善本書目』.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68.

(日本)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所藏古活字版圖錄』. 東京: 汲古書院, 1990.

(日本) 國立國會圖書館圖書部編. 『國立國會圖書館漢籍目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7.

宮內廳書陵部編. 『(宮內廳書陵部) 和漢圖書分類目錄(上·下·增加)』. 東京: 宮內廳書陵部, 1952·1953·1968.

內閣文庫編. 『改訂內閣文庫漢籍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1.

內閣文庫編. 『內閣文庫國書分類目錄』. 東京: 國立公文書館內閣文庫, 1974.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貴重書解題第一·二·三卷』. 東京: 大

- 東急紀念文庫, 1956・1956・1981.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55.
- 大東急紀念文庫編修. 『大東急紀念文庫書目第二』. 東京: 大東急紀念文庫, 1978.
-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編纂委員會編. 『東京大學總合圖書館漢籍目錄』.
東京: 東京大學總合圖書館, 1995.
- 東洋文庫日本研究委員會編. 『岩崎文庫貴重書書誌解題 I-IV』. 東京: 東洋文庫,
1990・1998・2000・2004.
- 東洋文庫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經・史・子部』. 東京: 東洋文庫,
1978・1986・1993.
- 東洋文庫編. 『岩崎文庫和漢書目錄』. 東京: 東洋文庫, 1934.
- 東洋文庫編. 『漢籍分類目錄: 集部(東洋文庫之部)』. 東京: 東洋文庫, 1967.
- 東洋學文獻センター連絡協議會編. 『東洋文庫所藏漢籍分類目錄』. 東京: 東洋文庫,
1967.
- 武田科學振興財團編. 『杏雨書屋藏書目錄』.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2.
- 武田科學振興財團編. 『杏雨書屋第34回杏雨書屋特別展示會 - 活字版の醫書・
本草書 -』.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2000. 5. 15.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國書分類目錄(正・續・再續)』. 東京: 靜嘉堂文庫,
1929・1939・1956.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續)』. 東京: 國立國會圖書館管理部,
1951.
- 靜嘉堂文庫編. 『靜嘉堂文庫漢籍分類目錄(正)』. 東京: 靜嘉堂文庫, 1930.
- 川瀨一馬. 『高木文庫古活字版目錄』. 東京: 高木義一, 1933.
- 天理大學附屬天理圖書館編. 『天理圖書館稀書目錄和漢書之部第一・二・三・
四』.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40・1951・1960・1998.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71.
- 天理圖書館編. 『古活字本目錄: 附年間主要增加和漢書目』. 天理: 天理大學出版
部, 1961.

- 天理圖書館編. 『善本圖錄』. 天理: 天理大學出版部, 1997.
- 天理ギャラリー-編. 『日本の古活字本』. 天理: 天理ギャラリー-, 1977.
- 杏雨書屋編. 『新修恭仁山莊善本書影』.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85.
- 杏雨書屋編. 『杏雨書屋圖錄』. 大阪: 武田科學振興財團, 1998.
- 杏雨書屋編. “杏雨書屋所藏古活字本日録,” 『杏雨』 4號(2001) 수록.
- 和歌山大學圖書館編. 『和歌山大學圖書館閱覽日録』. 和歌山: 和歌山大學圖書館, 2001년 검색.

2. 원사료

- 元恒. “活字銅版群書治要序.” 日本弘化3年紀州版 『群書治要』 卷頭 수록.

3. 저술·논문·보고서류

- 橘井清五郎. “紀州家舊藏銅活字に就て.” 『古版書誌論考』. 武藏村山市: 青裳堂, 1982. 28-45.
- 木宮泰彦. 『日本古印刷文化史』. 東京: 富山房, 1975.
- 文化廳編. 國寶·重要文化財總合目録: 美術工藝品編. 東京: 第一法規出版(株), 1980.
- 百瀬宏. “駿河版銅活字 その誕生の背景を探る.” 『アステ』 第9號(1991. 11). 12-15.
- 福井保. 『江戸幕府刊行物』. 東京: 雄松堂, 1985.
- 西野嘉章編. 『歴史の文字 - 記載·活字·活版』. 東京: 東京大學總合研究博物館, 1996.
- 印刷博物館學藝企劃室·凸版印刷株式會社エディトリアル研究室編. 『印刷博物館開館特別企劃展圖録: 江戸時代の印刷文化-家康は活字人間だった!!』. 東京: 印刷博物館, 2000.
- 印刷史研究會編. 『本と活字の歴史事典』. 東京: 柏書房, 2000.
- 静岡縣編. 『静岡縣史』. 静岡: 静岡縣, 1996. 300-309.
- 曹炯鎮. “古活字 印刷技術의 評價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2003.

6). 369-406.

曹炯鎮. “日本 伏見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9輯(2014. 9). 65-101.

曹炯鎮. “日本 駿河版 銅活字의 製作過程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4輯(2002. 12). 89-129.

曹炯鎮. “日本 勅版 古活字의 印刷技術 研究.” 『書誌學研究』 第54輯(2013. 6). 103-136.

中根勝. 『日本印刷技術史』. 東京: 八木書店, 2000.

川瀨一馬. “伏見版と駿河版.” 『書物春秋』 第19號(1932. 6).

川瀨一馬. 『增補古活字版之研究』. 東京: 共立社, 1967.

和田萬吉. 『日本古活字本研究資料』. 東京: 清閑舍, 1944.

和田萬吉. 『日本書誌學概說』. 東京: 有光社, 1944.

[부 록] 德川家康의 駿河版 관련 연표

慶長 10年(1605) 4월 伏見 圓光寺에서 三要元佶에 명하여 駿河版 간행 준비 착수.

慶長 11年(1606) 6월 4일 조선 동활자와 함께 동활자 91,261개(대자 55,360개, 소자 35,895개, 오차 6개)를 주조하여(1차), 6일 後陽成天皇(제107대 천황)에게 헌상.

慶長 12年(1607) 7월 駿府(현 靜岡市)로 이주, 은거.

慶長 14年(1609) 駿府에 圓光寺를 설립. 三要元佶를 지주로 영입.

慶長 20年(1615) 3월경 金地院의 崇傳(本光國師)과 林道春(1583-1657, 林家의 祖. 諱는 信勝, 号는 羅山, 字는 子信, 道春은 出家한 후의 号)에 명하여 동활자 10,368개(대자 8,844개, 소자 1,514개, 丁付字 10개)를 보주(2차), 목활자도 5,889개 조성하여, 6월 『大藏一覽集』을 간행. 豊臣秀吉 사망.

元和 2年(1616) 정월 19일 林道春과 崇傳에 명하여, 4월경 동활자 13,000개를 보주하여(3차), 6월 『羣書治要』를 간행.

4월 17일 德川家康, 駿府城(현 靜岡市에 있던 平城)에서 사망.

元和 5年(1619) 德川賴宣가 紀州(紀伊國의 別칭. 現 和歌山縣·三重縣의 南部)로 전봉될 때, 동활자·『大藏一覽集』 100부·인쇄 중인 『羣書治要』도 和歌山城(현 和歌山縣 和歌山市에 있는 성.)로 가져 감.

弘化 3年(1846) 봄, 紀州版 『羣書治要』를 간행.

7월 26일 벼락으로 동활자 2/3 등을 소실.

明治維新(1868년) 이후 紀州家 東京 이주.

明治 31年(1898) 德川賴倫이 東京都 港區 麻布의 자택에 南葵文庫를 설립. 동활자·부속용구·駿河版 『羣書治要』 등을 南葵文庫에 보관.

明治 41年(1908) 南葵文庫 공개.

大正 13年(1924) 南葵文庫를 동경제국대학부속도서관에 기증. 현재 동경대학도서관 소장 특수문고의 하나. 동시에 기증된 것으로 추정되는 銅大字 111개, 銅小字 207개, 목활자 大字 70개, 목활자 小字 37개, 합계 425개 및 印版 1면, 銅界線 20개, 銅匡郭 4개 1조 등이 東京大學 総合圖書館에 소장되어 있음.

昭和 15年(1940) 南葵文庫 해체 시, 활자 37,979개(銅大字 1箱 866개, 銅小字 17箱 31,300개, 목활자 5箱 5,813개)와 인쇄용구(印版 2면, 銅界線 88개, 銅匡郭 18개) · 『羣書治要』 41권 등을 凸版印刷(주)에 양도.

昭和 17年(1942) 『般若心經』 300부 인쇄.

昭和 19年(1944) 7월 6일 중요미술품으로 인정.

12월 『蘇峰詩集』 300부 인쇄.

昭和 37年(1962) 6월 21일 文化廳에 의하여 중요문화재로 지정.

三家 또는 御三家: 徳川將軍의 일가, 즉 尾州家(愛知縣 名古屋) · 紀州家(和歌山縣 和歌山) · 水戶家(茨城縣 水戶).

